

ETF 전략

‘코스닥 Level-UP의 시그널’ 점검

역대급 소외에서 확인 중인 코스닥의 현재: 기형적 자본 조달, 취약한 수급

지난 8월 21일 코스닥 시장의 하락(-4.6%)은 코스닥 시장의 현재를 보여준 하루였다. 주주환원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 시장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취약한 수급 기반과 함께 낮은 주주환원 기대감이 하락으로 이어졌다.

역대급 소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상장 폐지 강화를 통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변화, 승강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성장펀드에 의한 자금 지원도 하반기 기대되는 부분이다.

[시그널1]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현재진행형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다산다사 구조의 강화다. 이번 세제 개편안 내 생산적 금융 ISA, 주가 누르기 방지법, 국내생산세액공제도 관련도가 높다. 승강제의 경우 대형/실적 중심의 종목군 구성으로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그널2] 국민성장펀드: 펀드 자금 증액(+50조 원)

국민성장펀드는 1) 직/간접 경로를 통한 자금 지원 및 2) 코스닥 시장 선호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이다. 메가 프로젝트 내 간접투자 잔여분(5.6조 원)의 자금 운용을 위한 운용사 결성이 진행 중이어서 하반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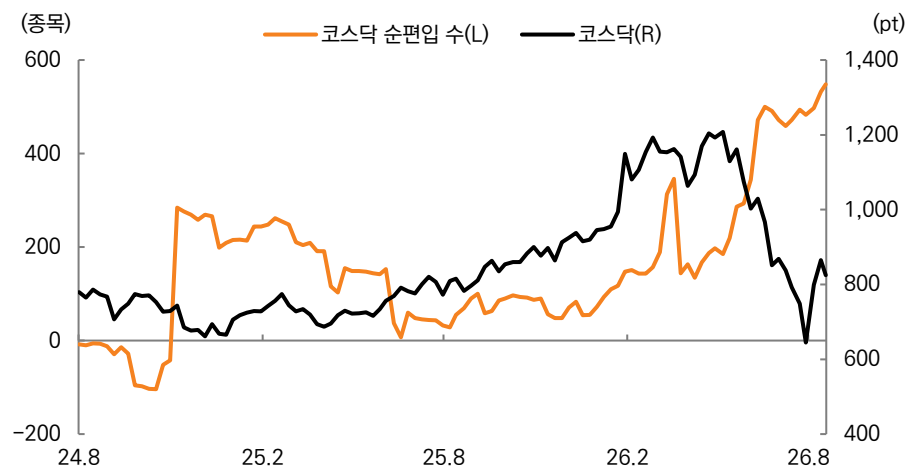
[시그널3] 코스닥 시장 수급 다변화

코스닥 시장 내 수급 다각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 순매수 주체는 기존 개인에서 기관/외국인으로 전환되었고, 거래대금 내 개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코스닥 ETF 상장 및 자금 유입도 지속 중이며, 코스닥 지수 추종 ETF 외 ETF에서도 코스닥 종목의 편입을 늘리고 있다.

[관심 ETF]

바이오 기술이전(A0168K0), 휴머노이드 로봇(A0148J0), 코스닥 글로벌(A461580)

코스닥 종목 편입을 늘려나가는 ETF: 코스닥 종목에 대한 ETF의 순편입 건수 누적 추이



I. 코스닥 Level-UP 시그널 점검

역대급 소외에서 확인 중인 코스닥의 현재: 기형적 자본 조달, 취약한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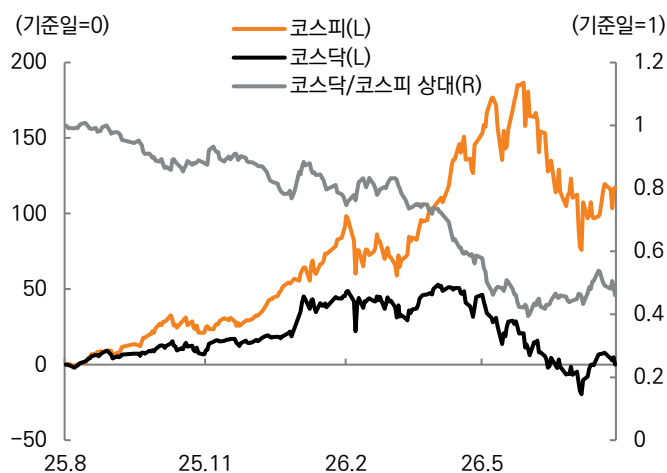
지난 8월 21일 코스닥 시장의 하락(-4.6%)은 코스닥 시장의 현재를 보여준 하루였다. SK 하이닉스의 40조 원대 자사주 매입에 이어 삼성전자 100조 원대 특별 배당 기대로 주주환원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낮은 수준의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이탈이 취약한 수급 기반과 함께 지수 급락으로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최근 1년(2025.8.26~2026.8.21)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0.03%로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그림 1).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로는 마이너스 수익률(-13.3%)을 기록 중이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64%)과 비교하면 부진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설 이후 최대의 소외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이유는 '실적 쏠림'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다산소사(多産小死) 구조로 시가총액만 증가하는 기형적 자본 조달(그림 2)과, 취약한 수급 여건에 따른 급등·급락의 반복이 시장 신뢰를 훼손해 대규모 장기 자금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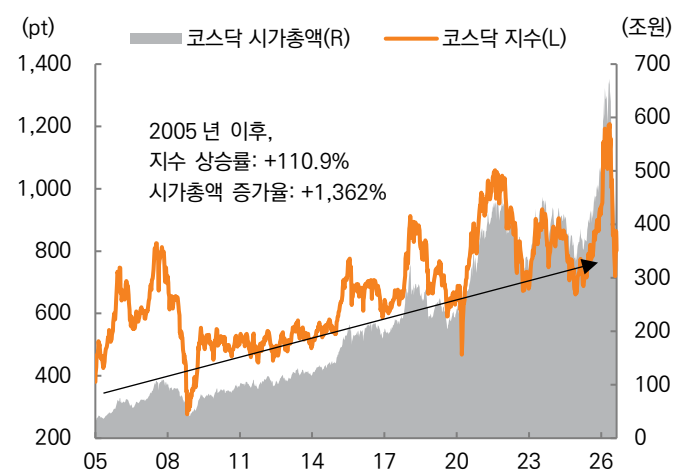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핵심은 기존 다산소사 구조를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시가총액과 추가(동전주) 요건 강화에 더해 공시 위반과 자본 요건도 함께 강화되며 부실 기업의 상장폐지를 늘려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초 적용 예정인 승강제는 실적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시장 체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에 의한 자금 지원 확대도 하반기 관전 포인트다.

그림 1.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 성과 추이(기준일: 2025.8.26)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코스닥 시가총액 증가율은 지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



주: 2005.1.2~2026.8.21,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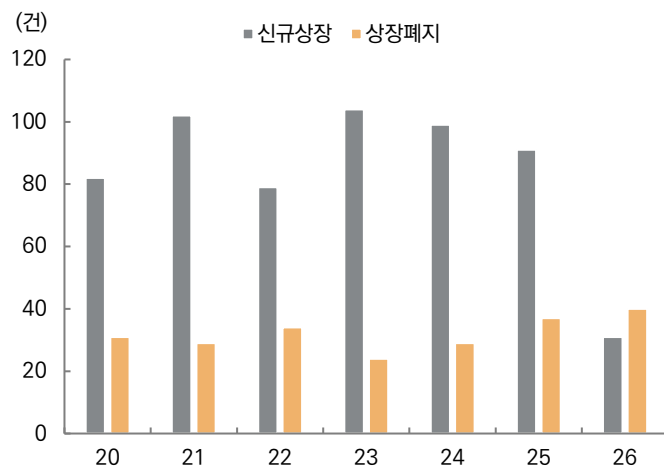
[시그널1]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현재진행형

정책 변화 리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핵심은 다산다사 구조의 강화다.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26년 7월 200억 원, 27년 1월 300억 원으로 앞당겨졌고, 생산적 금융 ISA, 코스닥 승강제,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후속 정책도 순차적으로 시행 일정이 확정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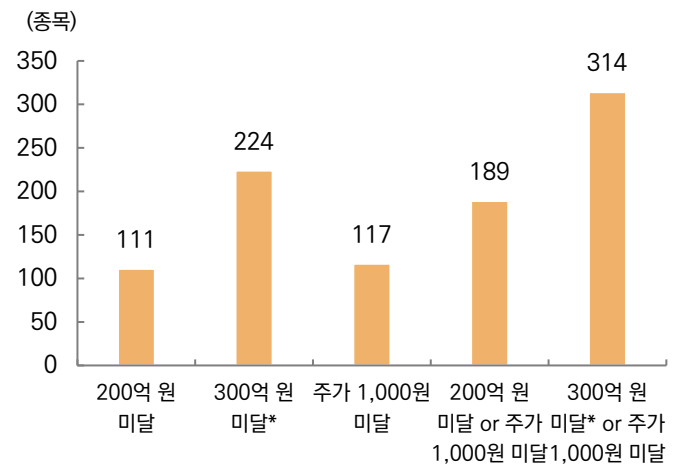
현재 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다. <그림 3>은 2020년 이후 코스닥 시장의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종목 수 추이이다. 신규상장이 상장 폐지를 크게 상회하는 전형적인 다산소사 시장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올해 상장폐지 종목 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는 8월 21일 기준 주요 상장폐지 기준별로 해당되는 종목 수로 300억 원 미달 종목은 224개이며, 추가 1,000원 미만 동전주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 기준 광의 대상은 314개에 달한다.

그림 3.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상장폐지 종목 수 추이



주: 스팩(SPAC) 제외,
자료: 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상장폐지 기준별 대상 종목(코스닥 시장, 2026.8.21 기준)



주: 시가총액 300억 원 미달은 200억 원 미달 종목을 제외한 수치,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및 동전주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29개다(표 1, 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추가 1,000원과 시가총액 200억 원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시점부터 상장폐지 확정까지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4분기 중 실제 퇴출 사례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시가총액 미달 기준 적용되며 최초로 관리종목 지정된 코스닥 기업 리스트

티커	기업명	관리종목 지정일	지정 사유	지정일 전일 종가 (원)	지정일 전일 시총 (억원)
A008290	원풍물산	2026.7.3	시가총액 미달 (8/13 동전주 추가)	359 (8/12)	58 (7/2)
A084180	수성웹툰	2026.7.13	시가총액 미달 (8/13 동전주 추가)	538 (8/12)	69 (7/12)
A312610	에이에프더블류	2026.7.16	시가총액 미달 (8/13 동전주 추가)	363 (8/12)	86 (7/15)
A289010	아이스크림에듀	2026.8.4	시가총액 미달 (8/13 동전주 추가)	891 (8/12)	114 (8/3)
A050090	비케이홀딩스	2026.8.4	시가총액 미달 (8/13 동전주 추가)	667 (8/12)	101 (8/3)
A035620	바른손이앤에이	2026.8.6	시가총액 미달 (8/13 동전주 추가)	805 (8/12)	145 (8/5)

자료: 한국거래소(KRX),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8/13 이후 신규 지정된 코스닥 기업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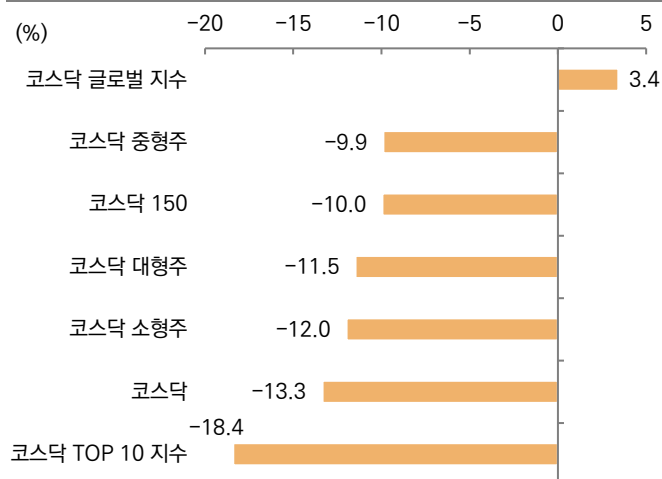
티커	기업명	관리종목 지정일	지정 사유	지정일 전일 종가(원)	지정일 전일 시총(억원)
A022220	티케이이재강	2026.8.13	동전주	689	357
A215790	이노인스트루먼트	2026.8.13	동전주	818	330
A095910	에스에너지	2026.8.13	동전주	759	283
A376930	노을	2026.8.13	동전주	656	336
A012340	뉴인텍	2026.8.13	동전주	724	160
A203400	에이비온	2026.8.13	동전주	749	675
A058820	CMG제약	2026.8.13	동전주	609	902
A057540	옵니시스템	2026.8.13	동전주	703	418
A239340	이스트에이드	2026.8.13	동전주	784	212
A099220	SDN	2026.8.13	동전주	693	436
A378800	샤페론	2026.8.13	동전주	614	284
A084650	랩지노믹스	2026.8.13	동전주	682	506
A033050	제이엠아이	2026.8.13	동전주	860	274
A033340	좋은사람들	2026.8.13	동전주	312	302
A037400	우리엔터프라이즈	2026.8.13	동전주	779	204
A225590	패션플랫폼	2026.8.13	시가총액 미달	2,820	144
A103230	에스앤더블류	2026.8.13	시가총액 미달	2,540	183
A060480	국일신동	2026.8.13	시가총액 미달	1,073	119
A002680	한탑	2026.8.13	시가총액 미달	2,795	181
A418620	E8	2026.8.13	동전주+시가총액 미달	706	140
A308100	형지글로벌	2026.8.13	동전주+시가총액 미달	412	106
A037330	인지디스플레이	2026.8.14	동전주	750	329
A045520	크린앤사이언스	2026.8.18	시가총액 미달	2,675	174

자료: 한국거래소(KRX),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승강제 도입 시점은 2027년 초로 연기됐으나, 여전히 하반기 코스닥 상대 강세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림 5>는 2026년 코스닥 주요 지수 성과로, '대형주 내 양호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편입하는 코스닥 글로벌 지수만 상승했다. 대형+실적 팩터가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점은 '대형/성장' 중심의 프리미엄 리그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승강제와 유사한 일본의 시장 재편(2022.4~)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 사례에서는 상장폐지·강등 조치 유예가 종료된 2023년 10월 이후 지수간 차별화가 발생했다(그림 6). 코스닥도 승강제 도입과 체질 개선 정책이 결합해 장기 성과 차별화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그림 5. 2026년 코스닥 주요 지수 성과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일본 시장 재편 후 지수별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새로운 정책들: 국내생산세액공제, 생산적금융 ISA, 주가 누르기 방지법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8/3) 중 코스닥 시장과 관련이 높은 내용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생산적금융 ISA’,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상당수가 코스닥 상장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매출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등), 이차전지 소재(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 AI 로봇 부품(레인보우로보틱스, 하이젠알앤엠 등) 다수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 세제 개편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생산적금융 ISA는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기존 ISA와의 가장 큰 차이는 1)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 되며, 2) 국내 자산만 가능하다는 점이다(표 3). 일본에서 한도/기한이 확대된 신 NISA 시행과 함께 납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를 볼 때, 생산적금융 ISA 시행 이후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그림 7). 특히 국민성장펀드, BDC도 투자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코스닥의 간접적 수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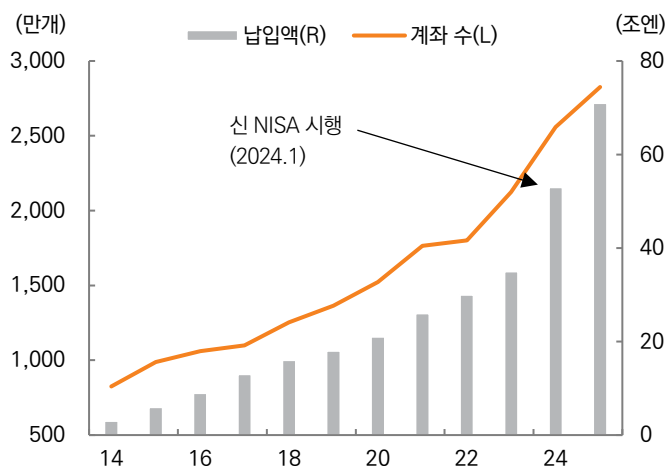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며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코스닥은 오너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이 다수 포함된 시장으로, 시장 특성상 상속·증여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코스닥 시장 내 PBR 요건(최근 13개 반기 기준 업종 하위 10%에 12회 이상 해당)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총 33개사로 추정된다(그림 8).

표 3. 생산적금융 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구분	일반 ISA (개정안)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청년형 ISA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34세 이하 청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세제 혜택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과세 (한도: 일반 200만 원, 서민 400만 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 대상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납입 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연간한도 이월 불가)	연 2천만 원, 총 2억 원(연간한도 이월 불가)	
투자 기간	3년(기존: 제한 없음 → +2년까지 연장 가능)	3년(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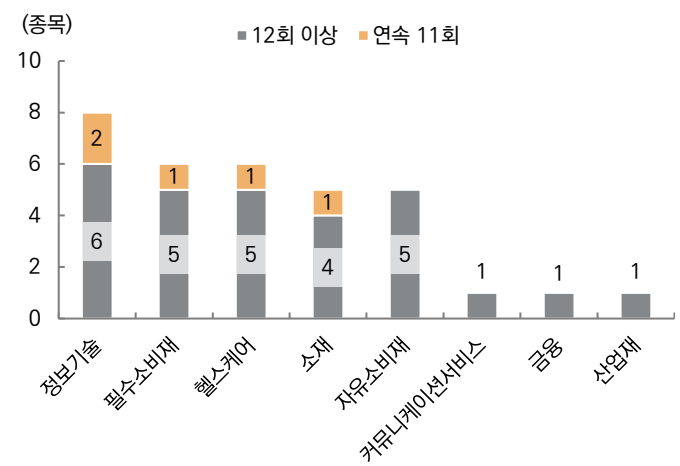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일본 NISA 가입 계좌 수 및 납입액 추이



자료: 일본금융청,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12개 반기 이상 PBR 하위에 속한 코스닥 기업 수



자료: KRX(한국거래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주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정리(음영: 업데이트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시행(예정)일
상장폐지 기준 강화	- 상장폐지 심사 대상 (2025.7.9 개정안) 1) 시가총액 기준: 기존 40억 원→26년 1월 150억 원 →27년 1월 200억 원→28년 1월 300억 원 2) 매출액 기준: 기존 30억 원→27년 1월 50억 원 →28년 1월 75억 원→29년 1월 100억 원 3) 자본 기준: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 4) 기타: 감사의견 미달 미해소 상태로 재차 미달	- 상장폐지 심사 대상 (2026.2.12 개혁안) 1) 시가총액 기준: 기존 40억 원→26년 1월 150억 원 →26년 7월 200억 원→27년 1월 300억 원 2) 매출액 기준: 좌동(*기술특례상장 기업은 5년간 면제) 3) 자본 기준: 반기말 완전자본잠식 4) 기타: 감사의견 미달 미해소 상태로 재차 미달,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 5년 이내 주된 사업 변경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 하회 시 최종 상장폐지	26.1.1, 26.7.1, 27.1.1
상장폐지 심사 인력	- 상장폐지 담당 부서: 3개 팀	- 상장폐지 담당 부서: 4개 팀(기획심사팀 신설)	26.2.9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 혁신 기업의 신속한 상장을 위해 맞춤형 심사기준 제공 : 바이오 산업만 맞춤형 심사 기준 운영 중 - 전문 평가기관: 26개 기관	-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추가 도입 : 1) AI, 2) 에너지(ESS, 신재생), 3) 우주 산업에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 마련 - 전문 평가기관: 16개 기관(*전문성/일관성 위해 기관 수 축소)	25.12.31, 26.3.3
국민성장펀드	-	- 개별 자펀드: 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에 투자 - 국민성장펀드 규모 확대: 150조 원 > 200조 원 - 지원 대상 확대: 12개 첨단산업(現) + 우주항공 등 전략산업(신규) - 직접 자본투자 방식 지원 확대: 年 3조 원 > 5조원 이상	(미정) 3Q26 2차 출시
코스닥벤처펀드	-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25% - 소득공제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 1인당 누적 3천만 원 -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투자금의 10%)	-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30% - 소득공제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 1인당 연간 2천만 원 - 소득공제 한도: 200만 원(투자금의 10%)	26.1.1
기금 운용 평가	- 대형/중소형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피만 반영 : KOSPI * 1.00	- 대형/중소형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반영 : (KOSPI * 0.95) + (KOSDAQ150 * 0.05)	-
BDC 도입	- 비상장 기업 투자자: 기관 또는 고액 투자자로 한정 - 투자 대상: 일반 공모펀드 규정	- 비상장 기업 투자자: 기관, 고액 투자자 + 일반 개인 투자자 - 투자 대상: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기업의 주식 /CB·EB·BW, 벤처조합 등 구조 60% 이상 - BDC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납입금 1억 한도로 9% 분리과세	26.3.17, 27.1.1
중복 상장	- 강화된 심사기준 하에 중복 상장 가능 여부 심사	-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시 중복 상장 원칙금지(예외 허용) -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	27.8.3
IPO 풋백옵션	- 풋백옵션 안내 방법에 증권사별 편차 높음	- 단계별, 투자자별 풋백옵션, 주의사항 표준화	(미정) 26.7
추정실적 비교공시	- IPO 시 주관사별 추정-실제 실적의 괴리를 비교공시 X	- IPO 시 주관사별 추정-실제 실적의 괴리를 비교 공시 O	26.3.13
주가누르기방지법	-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선정 기준 :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 총 4개월 평균 시가	-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선정 기준: (원칙) <좌동> : (예외)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할 경우, '주가 누르기'로 추정 1) 최근 13반기 중 12반기 PBR 업종 하위 10% 2) 주가하락 유도행위 존재 + 최근 평균주가 대비 30% 이상 하락 - '주가 누르기' 확정 시 평가기간 확대 및 최소 30% 할증평가	27.4.1
코스닥 승강제	- 코스닥 내 리그 구분 부재	- 코스닥 시장을 3개군으로 분리: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 등	27.1 (기존 26.10)
제약·바이오 공시 개편	- 공시체계 미흡 1) 공모가 산정시 핵심가정 표준 부재 2) 기술이전 계약 세부정보 공시 미흡	- 공시체계 표준화 및 공시 강화 1) 공모가 산정시 핵심가정 표준화 2) 기술이전 계약의 계약금·개발·판매 마일스톤 등 세부 공시 등	26년 내
저PBR 기업 공표제	- 낮은 PBR에도 대주주 이익(예: 지배력 확대 용이)을 위해 방치	- 저PBR 기업을 KRX 홈페이지에 공표 및 증권사 MTS에 태그	26.11.2
ISA 정비	- 일반 ISA 1) 계약 기간: 최소 3년, 연장 제한 X 2) 연간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 [1+가입경과연수] - 누적납입액 3) 투자 대상: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4) 세제: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생산적 금융 ISA (신설) 1) 계약 기간: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2) 연간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3) 투자 대상: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4) 세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급여 7,500만 원 이하인 37세 이하 청년: 납입금 10% 공제)	27.1.1
국내생산세액공제	-	- 요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 판매 - 품목: 태양광·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 부품	27.1.1

자료: 한국거래소(KRX),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언론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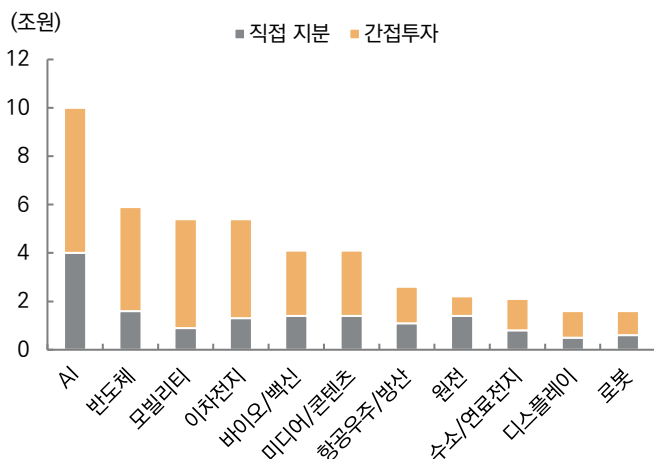
[시그널2] 국민성장펀드를 기반으로 한 자금 유입 지속

펀드 기금 증액(+50조 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출시 기대

대규모 정책 자금인 국민성장펀드는 1) 직/간접 경로를 통한 자금 지원 및 2)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호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정책 자금 배분에 있어서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코스닥 상장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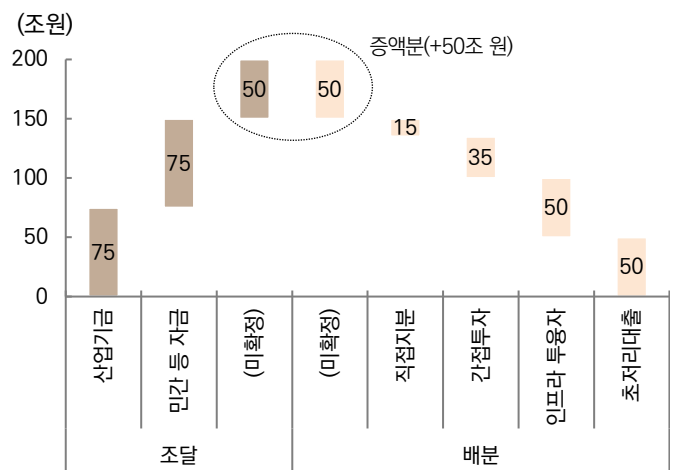
국민성장펀드는 최초 150조 원(5년)으로 조성됐으나,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 보고(7/15)에서 200조 원으로 증액됐다(그림 10). 정부 지분성 자본 100조원과 민간·국민 참여 100조 원으로 확대되며, 첨단전략산업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국민성장펀드 증액 관련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기존 12대 산업(AI,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미디어/콘텐츠, 항공우주/방산, 원자력, 수소/연료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배분 안은 유지되며 우주항공, 로봇 등이 신규 편입됐다(표 5).

그림 9. 국민성장펀드 내 직접/간접 투자분(50조 원) 배분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국민성장펀드 조달 및 배분안



자료: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5. 국민성장펀드 변경 내역

	기존안	2026.7.15 하반기 업무보고
전체 운용 규모	150조 원	200조 원
직접 지분 투자 규모	연 3조 원	연 5조원 이상
투자 대상	바이오·AI·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12대 산업	바이오·AI·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12대 산업 +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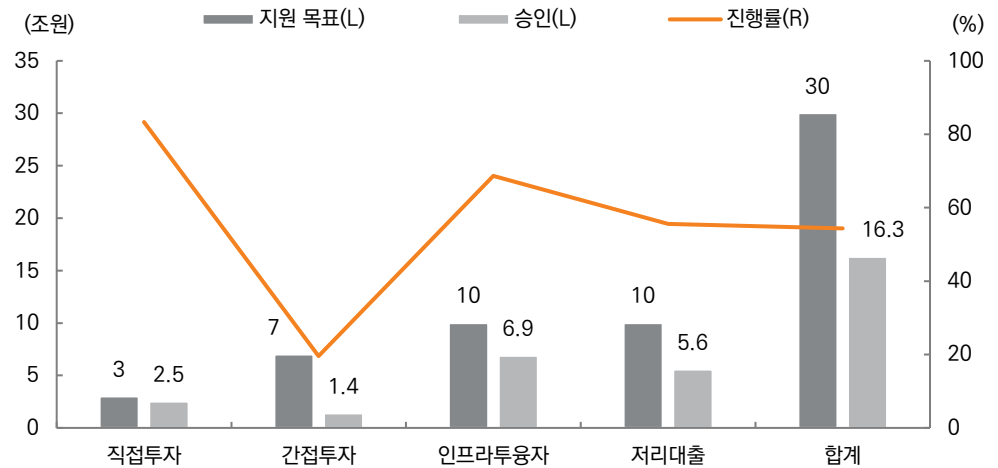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관련 산업 배분 규모도 늘어나며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은 지분성 9.3조 원(직접 투자 약 2.5조 원, 간접투자 약 8.8조 원)이며, 인프라/대출의 간접 지원까지 고려하면 5년 누적 약 14조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당초 1차로 종료 예정이었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천억 원 규모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증액과 관련, 추가된 50조 원의 재원 분담과 연도별 공급 경로, 지원 수단별 배분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은 올해 가을 진행될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메가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림 11>은 메가 프로젝트 2차분의 부문별 지원 목표 및 승인 금액이다. 지원 목표 대비 승인 금액은 54%로, 간접투자 부문의 진행률이 20%로 가장 낮다. 현재 간접투자 자금 운용을 위한 운용사(18개 운용사) 결성이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림 11. 메가 프로젝트 지원 목표 및 승인 금액



자료: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차 메가 프로젝트는 26년 6월 25일 '혁신적 바이오' 프로젝트를 포함해 5건이 승인되며 자금 집행이 지속되고 있다(표 6). 메가 프로젝트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지분 투자'이다. 정부의 지분 직접투자는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과 성장성에 대한 신뢰 시그널로 작용해 후속 민간 투자와 시장 재평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메가 프로젝트 1차 프로젝트(리벨리온)에 이어 2차 프로젝트에서도 업스테이지,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메가 프로젝트 1, 2차 주요 내용 및 지원 사례 (주황색 음영: 2026년 6월 이후 신규 승인)

차수	프로젝트 명	주요 지원 내용	지원 사례
1차	K-엔비디아(팍리스) 육성	국산 AI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리벨리온(6,400억 원 투자 집행)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지역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초대형 신재생 단지 조성	신안우이 해상풍력(3.4조 원 집행)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	파운드리 생산 라인 인프라 구축 및 가동 자금 공급	평택 반도체 생산기지(2.5조 원 집행)
	차세대 배터리 공급망	배터리 핵심 소재 국산화 및 지방 생산 공장 증설	후성(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공장 165억 원 집행)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단지(인프라 구축 중)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내 소부장 협력사 생태계 육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협력사 군단(지원 진행 중)
	전력반도체 국산화	전기차/친환경 산업 필수 부품인 차세대 전력반도체 양산	충북 지역 전력반도체 생산기업(시설 자금 지원)
2차	소버린 AI(Sovereign AI)	대한민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자체 생태계 고도화	업스테이지(투자 승인), 퓨리오사AI(직접 지분투자), 스마일게이트(인프라투융자)
	차세대 바이오/백신	유망 바이오 기업의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및 글로벌 임상 지원	비티젠(대출 지원), SK바이오사이언스(대출 지원),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5천억 원 직접 지분투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글로벌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프리미엄 설비 투자	엘지디스플레이(1.3조 원 저리대출)
	미래 모빌리티 및 방산	무인기(드론) R&D 센터 및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국산화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프로젝트 펀드 출자)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	내륙형 태양광, 육상풍력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지	(인프라 투융자) 지역
	새만금 첨단 벨트	비수도권 거점 중심의 첨단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직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대출) 지역

자료: 금융위원회, 언론 보도 취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시그널3] 코스닥 시장 수급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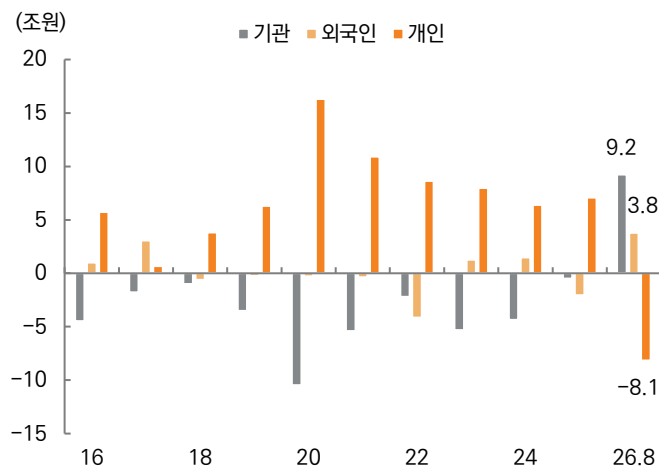
시장 내 개인 비중 감소 중

코스닥 시장 수급 다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림 12>는 코스닥 주체별 순매수 금액 추이로, 2025년까지 개인 중심의 순매수가 이어졌으나 2026년 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올해 코스닥 ETF 순매수 규모(+7.5조)를 감안하면 실제 이탈분은 -1.4조 원 가량(기관 순수급은 +2.1조)이나, 외국인/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 내 외국인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림 13>은 최근 10년 코스닥 시장 내 외국인 지분율 추이로, 2023년 이후 꾸준히 지분율을 늘려온 외국인이 최근 빠르게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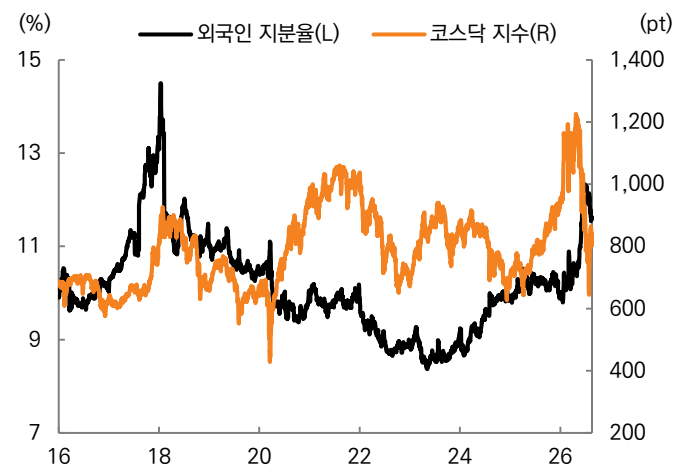
거래대금 내 비중도 변화하고 있다. <그림 14>는 주체별 코스닥 거래대금으로 개인 거래대금이 2021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내 개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15>는 코스닥 거래대금 내 주체별 비중으로, 개인 비중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6년 8월 66.3%까지 낮아졌다.

그림 12. 코스닥 주체별 순매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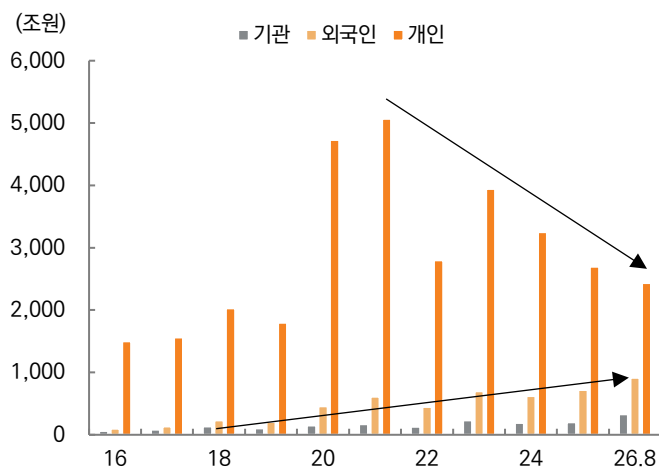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코스닥 내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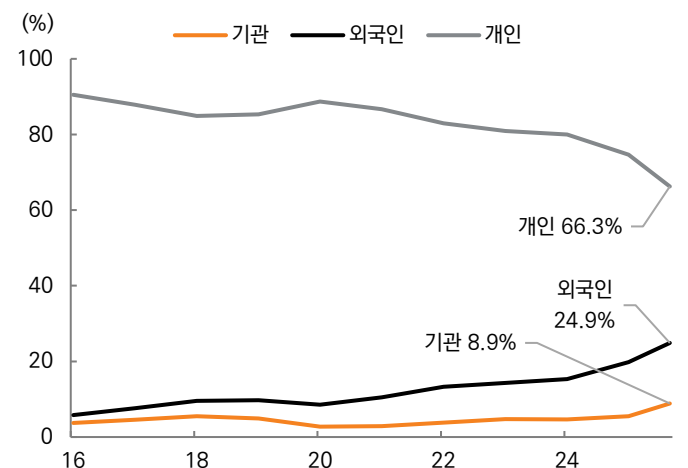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코스닥 주체별 연간 거래대금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코스닥 거래대금 내 주체별 비중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비중 늘리고 있는 ETF

ETF는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추종 및 코스닥 비중 70% 이상 ETF는 42종목, 순자산총액은 14.2조 원이다(8/16)(표 7). 2025년 말 3.8조 원 대비 3.8배 확대된 규모로,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TOP 10 ETF(A0192T0), 코스닥 커버드 ETF(A0198A0, A0223A0)가 상장되는 등 유형도 세분화되고 있다.

표 7. 코스닥 ETF 순자산총액 및 종목 수 변화(2025년 1월 초, 2026년 8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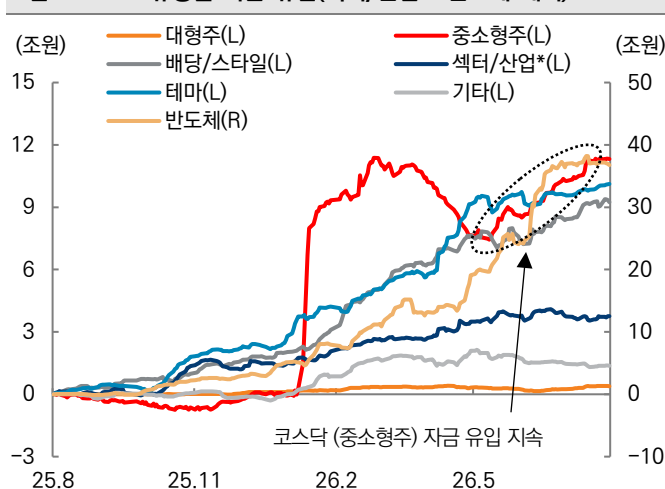
구분	순자산총액(억원)		증가율 (%)	종목 수(종목)		증가 수 (종목)	순자산총액 상위 ETF
	2025	2026.8		2025	2026.8		
대표	33,238	112,543	+239	17	21	+4	KODEX 코스닥150
대표(액티브)	0	8,338	-	0	6	+6	KoAct 코스닥액티브
헬스케어	1,762	9,022	+412	4	10	+6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반도체+IT	1,185	3,733	+215	1	1	0	SOL 반도체전공정
미디어	791	733	-7	4	2	-2	TIGER 미디어컨텐츠
테마/전략	901	7,752	+760	1	1	0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배당	66	285	+332	0	1	+1	RISE KQ배당
합계	37,943	142,406	+275	27	42	+15	-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TF를 통한 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1년 코스닥 지수 추종 ETF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11.3조 원으로, 1월 말 자금 유입이 급증하며 지수 강세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림 16>은 주요 유형별 ETF 자금 유입 추이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5/27) 이후에도 코스닥 지수 추종 ETF에는 꾸준히 자금 유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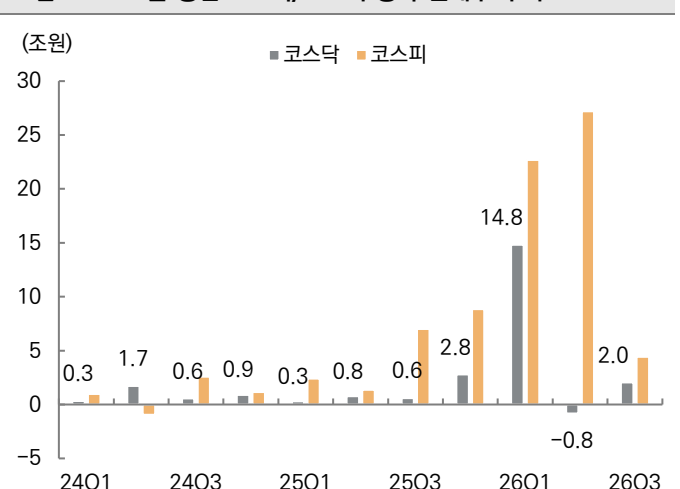
시장 기반 확대 및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ETF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순매수도 지속되고 있다. <그림 17>는 ETF를 통한 코스피/코스닥 종목 순매수 추이로 코스닥 종목 순매수는 2024년 +3.3조 원, 2025년 +5.7조 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6년에는 +27.8조 원으로 급증했다. 2분기 일시적으로 유출(-8,393억 원)을 보이기도 했으나, 3분기 들어 다시 +2조 원으로 증가했다.

그림 16. ETF 유형별 자금 유입(섹터/산업*: 반도체 제외)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ETF를 통한 코스닥/코스피 종목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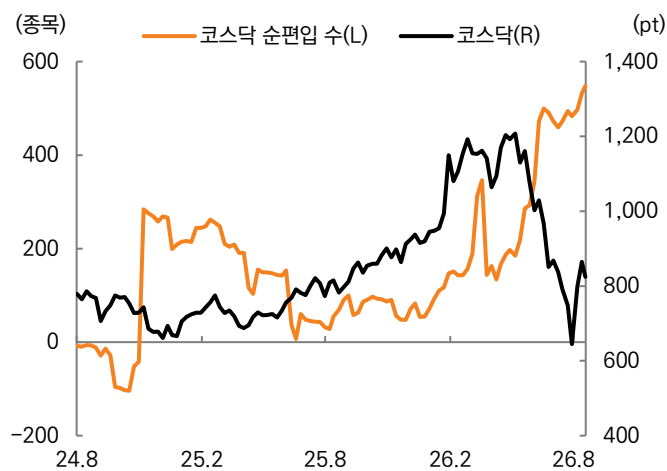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ETF 자금 유입 금액보다 코스닥 종목에 대한 ETF 순매수 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은 코스닥 지수 추종 ETF 외의 ETF에서도 코스닥 종목에 대한 편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ETF 편입은 편입 시점에는 일시적 충격으로만 작용한다. 그러나 이후 자금 유입 과정에서 편입 종목에 대한 매수 주체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18〉은 ETF에서 발생하는 편입, 편출 종목 중 코스닥 종목을 순편입 건수(편입-편출, 단일 종목 복수 편입 시 각각 반영)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4월 고점 이후 코스닥 시장 하락에도 ETF에서 꾸준히 코스닥 종목을 늘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하락 시 편입 확대, 상승 시 편출 확대 패턴에서 벗어나 최근 시장 반등 구간에서도 ETF 내에서 편입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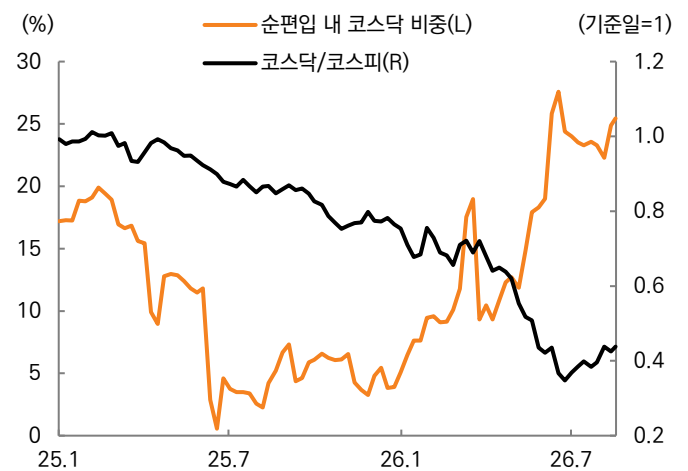
코스피 대비 코스닥 종목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림 19〉는 한국 주식에 대한 ETF의 순편입수 내에서 코스닥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이다. 즉, 순편입 내 코스닥 비중 25%는 특정 기간 순편입 수 100건 중 25건이 코스닥 종목임을 의미한다. 올해 3월 단기적으로 축소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26년 4월 이후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ETF의 코스닥 종목 선호로 인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금 확산 과정에서 코스닥의 수혜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8. 코스닥 종목에 대한 ETF의 순편입 건수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코스닥/코스피 상대강도 및 순편입 내 코스닥 비중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코스닥 ETF 투자 전략

코스닥 주도 산업 ETF로 따라잡기

매출 성장, 정책, 자금 감안 시 주도 업종은: 반도체, 바이오,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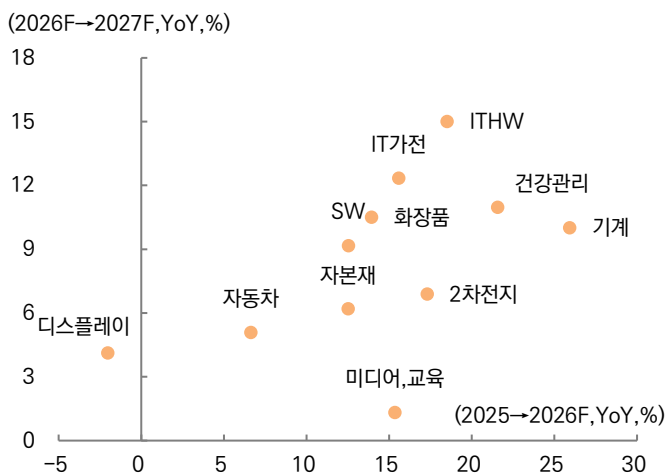
코스닥 시장의 하반기 방향성을 결정할 주도 산업은 정책과 실적, 수급 세 축이 동시에 맞물리는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정책과 실적, 자금을 함께 고려할 때, 하반기 코스닥 주도 업종은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은 커버리지 비율이 낮은 코스닥 시장 특성상 실적 전망은 전방 산업 성격을 가진 코스피 시장의 실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코스닥 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코스피와 동반성을 보이며, 후방 산업은 전방 산업의 영업이익보다 매출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림 20>은 코스피 산업별 2026년, 2027년 매출액 증가율 전망으로, 반도체, 기계, 건강관리 산업은 향후 2년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ETF 자금 측면에서는 기계, 반도체, IT가전, 자본재의 유입이 높았다. <그림 21>은 코스닥 유동 시가총액 상위 10개 산업을 기준으로, 산업별 유동 시가총액 대비 ETF 잔고 비중 및 2025년 말 대비 보유 비중 증감을 나타낸다. 미디어, 교육을 제외하고 대상 산업 전체에서 전년 말 대비 유동 시가총액 대비 ETF 보유 비중이 증가했다.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산업은 기계로 +6.8%p가 증가했고, 반도체도 +6%p가 증가했다. 정책 수혜 강도가 높은 건강관리 산업도 +3%p 증가해 유동 시가총액 내 비중을 2배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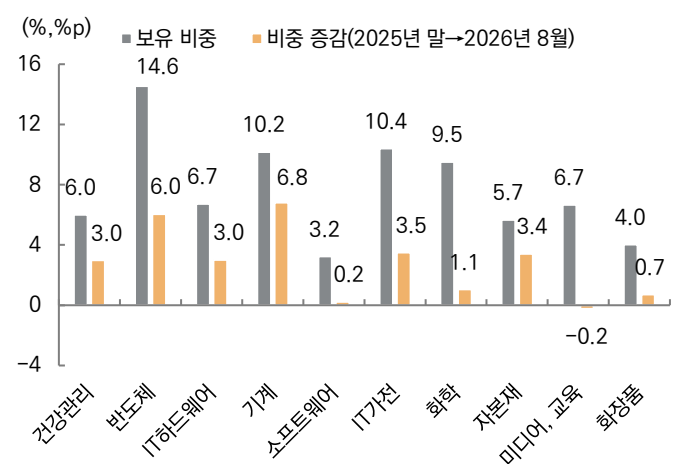
이와 관련, 하반기 관심 ETF로는 바이오 기술이전 ETF(A0168K0), 휴머노이드 로봇 ETF(A0148J0) 및 대형+실적 팩터를 보유한 코스닥 글로벌 지수 ETF(A461580)를 선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주도주 요건에는 해당하나 유동 시가총액 내 ETF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코스닥 글로벌 지수 ETF는 하반기 승강제 관련 대형/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했다.

그림 20. 코스피 산업별 향후 2년 매출액 증가율(추정치)



주: 코스닥 산업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산업 대상 코스피의 산업별 매출액 추정치.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은 2025→2026F: +147.6%, 2026F→2027F: +33.2%,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코스닥 산업별 유동 시가총액 대비 ETF 잔고 비중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주도 산업 관련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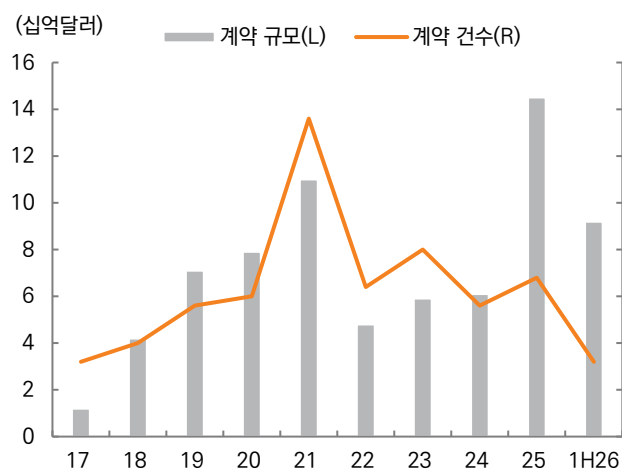
[주도 산업 1] 바이오 기술이전: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A0168K0)

코스닥 바이오 산업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의 연관도가 높다. 정부의 기술자문역 60인 풀 구성에서 바이오는 AI, 우주와 함께 10명이 배정되며 최우선 순위에 배치됐다. 바이오/백신 분야에는 11.6조원이 배정됐다.

바이오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것은 기술이전 관련 기업이다. 특히 2025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으며, 2022년 이후 기술 이전 계약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그림 22). 글로벌 빅파마 특허 만료 본격화로 바이오 내 기술이전 기업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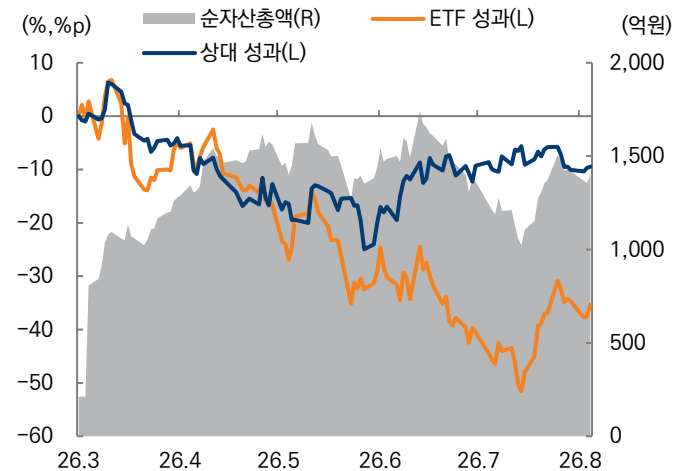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A0168K0)는 국내 바이오 기업 중 최근 5년간 기술이전 계약 금액이 높은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하는 액티브 ETF로, 코스닥 종목 비중은 79%이다. 편입 상위 TOP 5 내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A009420)를 제외하고는 모두 코스닥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8).

그림 22. 한국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거래건수 및 금액



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3. ETF 성과 및 주식 수 추이(상대 성과는 코스닥 150 대비)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8. 편입 비중 TOP 5 (2026.8.21 기준)

편입 비중(%)	티커	종목명	산업	시가총액(억원)	유동 시가총액(억원)
9.5	A196170	알테오젠	건강관리	171,476	136,547
9.1	A226950	올릭스	건강관리	20,663	16,543
8.0	A141080	리가캠바이오	건강관리	37,019	26,006
5.6	A009420	한올바이오파마	건강관리	29,516	19,501
5.5	A298380	에이비엘바이오	건강관리	42,103	31,640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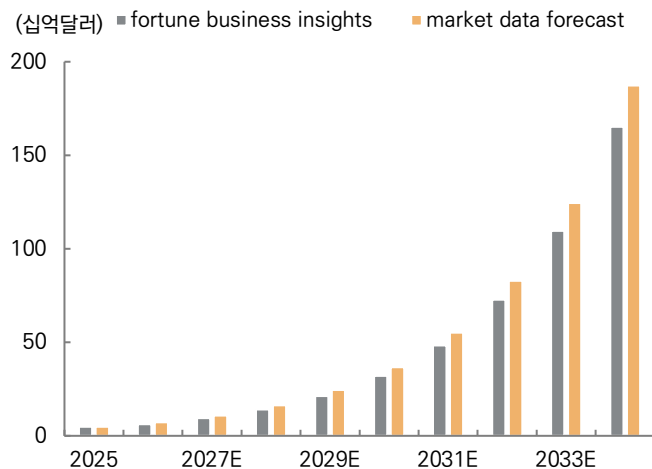
[주도 산업 2] 휴머노이드 로봇: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A0148J0)

휴머노이드 로봇은 국민성장펀드 신규 편입 산업(로봇, 우주항공 등) 중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태양광, 이차전지, 반도체와 함께 AI 로봇 부품이 27년 1월 시행 예정으로 포함되어 있어 세제 지원 근거도 확보됐다. 또한 인프라 구축 관련 기반 산업으로서 데이터센터와 전력반도체 등 인프라 산업의 관련 수혜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

실적 관련, 코스피 기계 산업 매출액은 2026년 +25.9% 성장 전망이며, 2028년 휴머노이드 본격 양산 시점을 앞두고 관련 부품, 모듈 기업의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 산업 내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라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34년까지 1,650억 달러~1,870억 달러 규모로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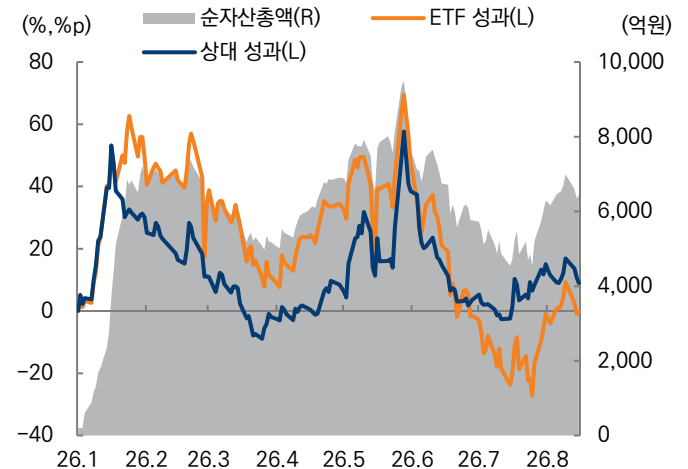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A0148J0)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테마 ETF로, KEDI 코리아 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PR) 지수를 추종한다. 해당 지수는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2천억 이상/일정 유동성 충족 종목을 대상으로, 기계/제조 등에 관련된 기업 중 키워드 유사도를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한다. 편입 상위 TOP 5 내에서는 두산로보틱스(A4549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코스닥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9).

그림 24. 시장 조사 기관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5. ETF 성과 및 주식 수 추이(상대 성과는 코스닥 150 대비)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9. 편입 비중 TOP 5 (2026.8.21 기준)

편입 비중(%)	티커	종목명	산업	시가총액(억원)	유동 시가총액(억원)
16.3	A108490	로보티즈	기계	37,239	28,328
14.2	A277810	레인보우로보틱스	기계	88,075	47,578
12.3	A454910	두산로보틱스	기계	45,957	22,988
9.5	A058610	에스피지	IT가전	21,179	13,138
7.0	A090360	로보스타	기계	7,625	5,078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대형실적주]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TIGER 코스닥글로벌(A461580)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지수는 한국 거래소가 지정한 편입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에 신청에 의해 편입된 종목을 추종하는 지수이다(표 10). 코스닥 주요 지수 내에서 유일하게 실적팩터를 반영하고 있다. 대형+실적주 요건이 올해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보이고 있으며, 승강제 관련 유사한 측면도 많아 기대감도 높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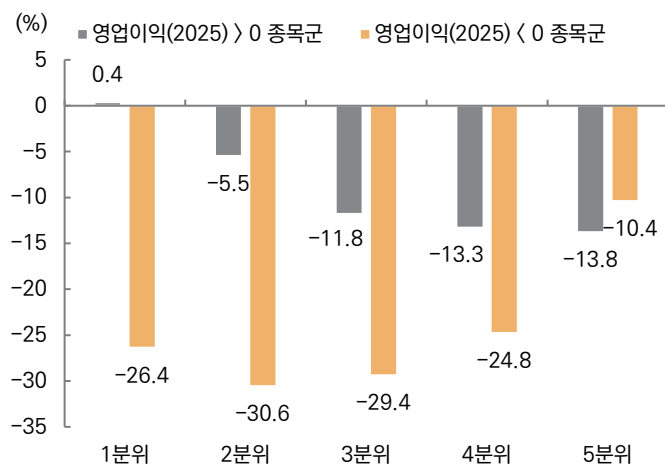
표 10.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 요건

항목	재무실적 적용 유형	재무실적 미적용 유형
시장 평가 등	1.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 or 상위 7% 이내 2.다음 중 하나 충족 1) 영업이익 300억 원 이상* & 최근연도 세전이익 2)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1.시가총액 1조 원 이상 or 2.5% 이내 2.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임상 1상 이상 복구 후보물질 보유 4.다음 중 하나 충족 1) 최근 10사업연도 이내 신약 허가실적 2) 최근 2사업연도 이내 기술이전 실적 보유 및 기술이전 관련 매출액 합계 100억 원** 3) 매출액 300억 원* 이상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경영 투명성	2개 이상 평가기관 기업 지배구조 평가 등급 B등급 이상	

주: *매출액/영업이익 요건은 최근 및 최근 3사업연도 평균, **기술이전: 매출처가 글로벌 TOP 20 제약사인 경우 100억 원 미만도 인정.
자료: 한국거래소(KRX),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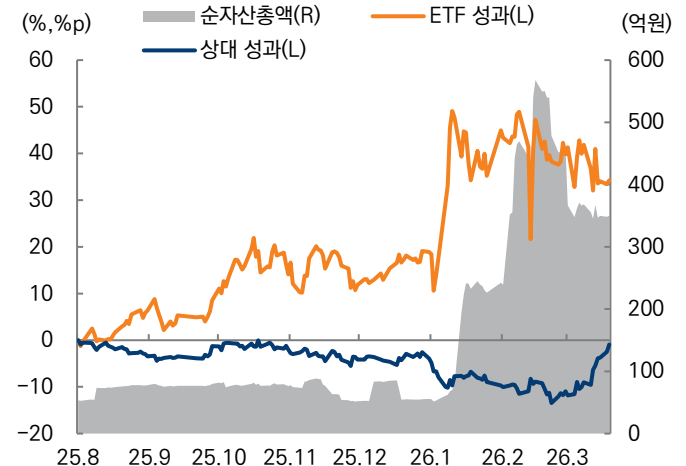
TIGER 코스닥글로벌 ETF(A461580)는 '코스닥 글로벌 지수' 추종 ETF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을 편입한다.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변경을 실행한다.

그림 26. 코스닥 시가총액 분위별 연초대비 수익률(~8/21)



주: 1분위는 시가총액 상위 20%, 영업이익은 2025년 대상.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7. ETF 성과 및 주식 수 추이(상대 성과는 코스닥 150 대비)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10. 편입 비중 TOP 5 (2026.8.21 기준)

편입 비중(%)	티커	종목명	산업	시가총액(억원)	유동 시가총액(억원)
20.9	A196170	알테오젠	건강관리	171,476	136,547
10.0	A086520	에코프로	화학	110,929	81,611
7.2	A247540	에코프로비엠	IT가전	103,309	56,148
6.4	A036930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78,367	52,475
4.4	A240810	원익IPS	반도체	52,962	35,050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코스닥 ETF 현황

코스닥 ETF 현황

표 12. 한국 상장 코스닥 관련 ETF (유형별 순자산총액 순 최대 5개, 2026.8.21 기준)

구분	티커	ETF 명	순자산총액 (억원)	수익률(%)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비교) 코스피	-		-	-0.9	2.5	-11.6	19.0
(비교) 코스닥	-		-	-7.3	6.5	-27.5	-30.5
대표 지수	A229200	KODEX 코스닥150	48,922	-6.9	9.2	-25.7	-31.6
	A232080	TIGER 코스닥150	13,086	-6.9	9.2	-25.6	-31.6
	A0192T0	SOL 코스닥TOP10	325	-6.1	18.0	-22.8	-
	A461450	KODEX 코스닥글로벌	227	-5.3	9.9	-19.5	-19.4
	A461580	TIGER 코스닥글로벌	109	-5.4	10.6	-18.5	-18.3
대표(액티브)	A0163Y0	KoAct 코스닥액티브	4,407	-6.8	-1.1	-30.6	-
	A0162Y0	TIME 코스닥액티브	2,513	-7.8	0.1	-33.9	-
	A0220B0	DS 코스닥액티브	396	-11.1	-14.6	-	-
	A0204S0	TIGER 코스닥액티브	296	-9.5	-8.4	-	-
	A0166N0	PLUS 코스닥150액티브	269	-5.8	-0.8	-32.3	-
대표+멀티에셋	A0198A0	KIWOOM 코스닥150커버드콜액티브	559	-6.1	6.2	-	-
	A0186S0	1Q 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	408	-2.9	5.3	-12.6	-
섹터/산업(테크)	A475300	SOL 반도체전공정	2,817	-4.2	-7.9	-15.0	14.3
	A476260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419	-7.7	-12.9	-19.5	-3.1
	A261060	TIGER 코스닥150IT	257	-7.1	0.6	-27.2	-7.8
섹터/산업(헬스케어)	A462900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3,711	-7.1	9.3	-19.7	-38.9
	A244580	KODEX 바이오	2,143	-8.2	7.9	-20.5	-37.9
	A0168K0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1,294	-8.2	10.5	-20.2	-
	A261070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601	-5.4	19.9	-15.0	-36.6
	A0000Z0	RISE 바이오TOP10액티브	529	-7.9	8.5	-28.0	-44.3
섹터/산업(미디어)	A228810	TIGER 미디어컨텐츠	733	-6.1	-2.6	-23.2	-50.0
테마	A0148J0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6,133	-12.0	19.3	-31.6	-32.8
	A475050	ACE KPOP포커스	945	-4.7	-5.5	-24.7	-46.9
	A0207G0	SOL 우주항공밸류체인	379	0.0	0.0	0.0	0.0
전략/스타일	A0223A0	RISE 코스닥커버드콜액티브	379	-13.6	13.7	-	-
	A270800	RISE KQ고배당	82	-6.2	-0.4	-17.5	-9.6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